

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5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강훈식 · 서왕진  
박지원 · 김한규 · 이인영  
전현희 · 김영배 · 김승원  
서영석 · 남인순 · 소병훈  
김병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 재  
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  
에서 2023년 8월 기준 1,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  
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  
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. 이런 이유로 저소득  
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. 심지  
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  
음.

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 
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  
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

입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2 신설).

#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2(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)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,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
<u>&lt;신    설&gt;</u>	<p><u>제82조의2(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)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,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